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방안¹⁾

양준영 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센터)

- 우리나라 청년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형태와 구성도 변하고 있음.
- 사회적 관계망은 그 형태에 따라 주관적 행복, 건강, 삶의 질 등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에서 중요한 사회적 자원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 관련 연구는 노년층 또는 중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매우 부족함.
- 이 글에서는 1인 가구 청년층(19세~34세)을 성별로 나누어 사회적 관계 현황과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고, 청년층의 성별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과 통계 생성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구분	내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분석, 통계청 2019,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분석 *모든 자료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함
분석대상	19~34세 청년층
용어정의	- 1인 가구 : 타 가구원 없이 1인으로 구성된 가구 - 2인 이상의 다인 가구 : 2인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비혈연 가구 포함) - 코로나 전후 기준 : 사회조사의 경우 2019년 자료는 코로나 이전, 2021년 자료는 코로나19 이후로 정의함

1) 본 원고는 KWDI 성인지통계 리포트 22-2(1인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일부 수정 및 편집한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원문은 성인지통계 홈페이지(<https://gsis.kwdi.re.kr/gsis/kr/board/BoardDetail.html>)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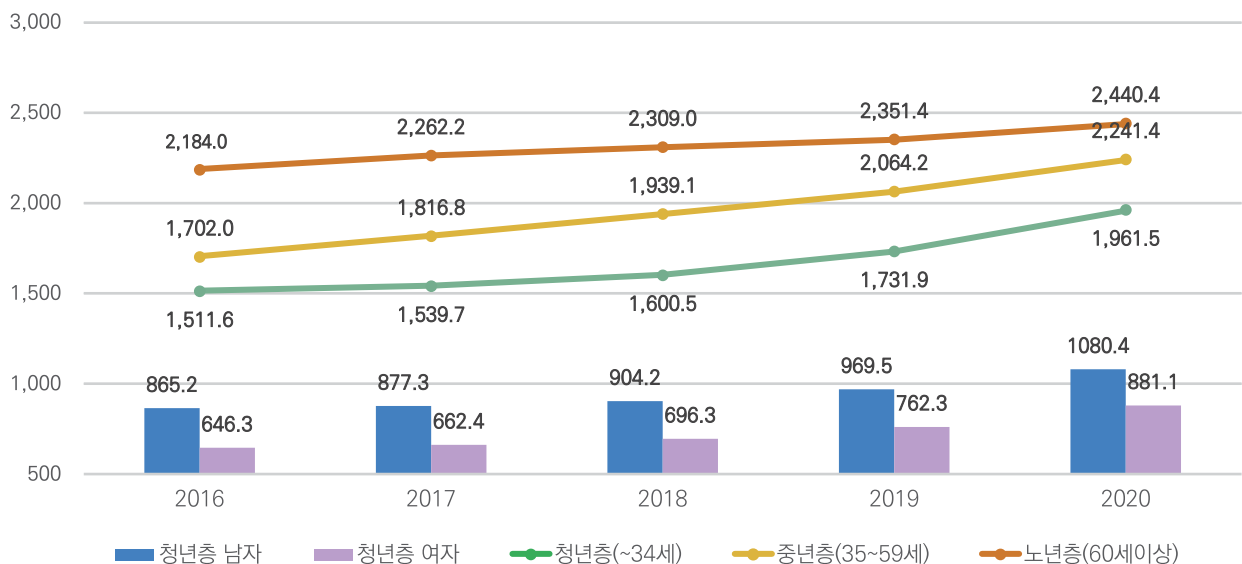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망과 가구형태의 변화

청년층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 특히 2019년은 201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3배의 증가율을 보임.
- 청년층 1인 가구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으나, 남성보다 여성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연령별 1인 가구

(단위: 천가구)



<표 1> 연령별 1인 가구 증감률

구분		2017년도 증감률(%)	2018년 증감률	2019년 증감률	2020년 증감률
청년층		1.9	4.0	8.2	13.3
	남자	1.4	3.1	7.2	11.4
	여자	2.5	5.1	9.5	15.6
중년층		3.6	2.1	1.8	3.8
노년층		6.7	6.7	6.5	8.6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자료 재구성

* 주 : 증감률 = ((해당연도/전년도)/전년도) * 100

- 또한 코로나19(COVID-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은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통계청이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 이상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함.
-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에 비해 친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가족과 친인척 등 혈연관계와 멀어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

(단위: %)

구분	가까워졌다	변화없다	멀어졌다		
			청년전체	1인 가구 청년	2인 이상 가구 청년
가족	15.5	78.4	6.1	12.5	4.9
친인척	2.9	70.2	27.0	33.1	25.8
이웃	1.1	70.7	28.2	31.7	27.5
친구	3.2	71.4	25.4	24.8	25.5
동료	2.9	70.7	26.4	26.5	26.4
취미활동단체	1.8	53.8	44.4	49.9	43.2
종교단체	1.6	62.8	35.6	36.8	35.4
기타지인	1.2	58.2	40.6	44.7	39.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1인 가구 청년층과 사회적 관계망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현황

●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고, 평균 교류 인원이 많음.

-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교류가 다인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다인 가구의 경우 매일 보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은 제외되고, 1인 가구는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모든 교류 대상이 교류 인원으로 집계되어 생긴 수치로 추측됨.
-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아예 없는 비율이 높았으나, 교류가 있는 경우 교류 대상 인원은 여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1인 가구 청년 여성보다 사회적 교류가 없는 집단과 활발한 집단 사이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하루 평균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단위 : %, 명)

구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사회적 교류가 있음(%)	86.8	94.1	89.6	87.9	92.3	90.1
평균 교류 인원(명)	8.08	6.99	7.62	7.46	7.35	7.4
아무와도 사회적 교류가 없음(%)	13.2	5.9	10.4	12.1	7.7	9.9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2) 같이 거주하거나, 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3) 교류있음 : 가족·친인척 및 그 외의 사람들 중 한명 이상과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교류가 있는 경우

● <표 3>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작 문제상황에서는 다인 가구보다 도움 요청이 가능한 비율이 적게 나타남.

- 모든 문제상황에 대해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교류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문제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예 없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여성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있어서 집단 간 편차가 크진 않아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줌.
- 오히려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모든 문제상황에 있어 도움 인원은 청년 남성보다 적게 나타남.

〈표 4〉 문제 상황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존재 여부

(단위: %, 명)

구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음(%)	86.2	95.4	89.7	87.4	92.4	89.9
평균 도움 인원(명)	3.62	3.08	3.39	3.21	3.00	3.10
몸이 아플때	3.10	2.64	2.90	2.80	2.60	2.70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때	3.01	2.30	2.71	2.63	2.39	2.51
정서적으로 힘들때	3.75	3.73	3.74	3.60	3.54	3.57
모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	13.8	4.6	10.3	12.6	7.6	10.1
몸이 아플때	30.3	13.3	23.7	24.9	20.0	22.4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때	39.5	30.3	35.9	42.0	37.0	39.5
정서적으로 힘들때	19.3	9.1	15.4	18.2	11.7	14.9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2) 모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 : 모든 문제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경우
3) 도움요청 대상 있음 : 한가지 이상의 문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경우

1인 가구 청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관계망

-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에 비해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 역시 더 높게 나타남. 특히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문제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5〉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청년 비율

(단위: %)

구분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낌	
		그렇다 (매우그렇다 +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 전혀그렇지 않다)
1인 가구 청년		20.7	79.3
	남자	19.1	80.9
	여자	23.2	76.8
2인 이상 가구 청년		18.0	82.0
	남자	17.3	82.7
	여자	18.7	81.3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분석

● MSPSS²⁾ 척도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청년은 남녀 모두 다인 가구 청년에 비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체계가 작음.

- 특히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지된 사회적지지가 가장 적음. <표 4>에서 확인했던 1인 가구 청년 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청년이 많았던 형태가 MSPSS 척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지지체계를 크게 인지하고 있음. <표 3>에서 1인 가구 청년 여성이 남성보다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 상이한 결과로, 사회적 지지체계는 많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지할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모든 집단의 청년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의미있는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받는 경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그림> 지각된 사회적 지지(MSPSS)

(단위: 점)



<표 6> 지각된 사회적 지지 비율

구분		가족	친구	의미있는 주변인
1인 가구	남자	5.40	5.38	5.36
	여자	5.51	5.44	5.52
	전체	5.45	5.41	5.43
2인 이상 가구	남자	5.66	5.48	5.57
	여자	5.69	5.54	5.67
	전체	5.67	5.51	5.6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2) Zimet et al(199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구성을 보는 지표로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짐(부록 <표 1> 참고)

1인 가구 청년이 실제로 활용하는 사회적 관계망

- 다인 가구 청년의 문제상황 시 가장 먼저 찾는 대상 1순위는 ‘가족’인 반면, 1인 가구 청년은 ‘친구·학교 선후배’임.

- <그림 2>에서 1인 가구 청년이 가장 크게 인지한 사회적 지지체계는 가족이었던 것과 달리 실제 문제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은 대상은 ‘친구 및 학교 선후배’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간의 차이가 있음.

<그림 3> 문제상황 시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단위 : %)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감정적/심리적, 건강, 금전, 안전 총 4개의 각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을 묻는 문항의 답을 중복응답처리

● 1인 가구 청년 남성의 경우 어떤 문제상황이든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음(<표 7>, <표 8>)

- 특히 청년 남성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상황에 비해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연애/결혼 문제에 대해 가장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임.
-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건강' 관련 문제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다인 가구 청년 남성과 비교 시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다른 문제상황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임.

<표 7> 1인 가구 청년이 문제상황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단위 : %)

구분		1인 가구 청년						
문제	성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감정적/심리적	남자	19.0	0.4	60.2	6.0	0.4	1.8	12.3
	여자	15.9	1.4	70.6	4.2	0.9	0.9	6.1
	전체	17.7	0.8	64.7	5.2	0.6	1.4	9.6
건강	남자	50.2	1.2	22.9	6.3	0.4	5.5	13.4
	여자	60.6	0.5	23.2	1.5	1.0	5.6	7.6
	전체	54.8	0.9	23.1	4.2	0.7	5.5	10.9
금전	남자	62.0	1.1	19.3	4.4	0.4	0.7	12.0
	여자	71.7	0.5	15.7	1.5	1.0	0.0	9.6
	전체	66.1	0.8	17.8	3.2	0.6	0.4	11.0
안전	남자	37.6	0.8	29.4	13.1	0.4	2.4	16.3
	여자	45.3	1.2	35.5	7.6	1.2	0.0	9.3
	전체	40.8	1.0	31.9	10.8	0.7	1.4	13.4
가족	남자	58.8	2.4	24.3	2.7	0.4	0.8	10.6
	여자	64.2	3.6	22.8	1.6	0.5	0.5	6.7
	전체	61.2	2.9	23.7	2.2	0.4	0.7	8.9
본인의 취업/학업	남자	25.6	0.4	52.0	8.4	0.4	1.1	12.1
	여자	20.9	1.0	60.2	5.5	1.5	1.5	9.5
	전체	23.6	0.6	55.5	7.2	0.8	1.3	11.0
연애/결혼문제	남자	12.6	0.3	71.3	4.2	0.0	0.3	11.2
	여자	4.9	1.0	79.8	2.0	1.0	0.0	11.3
	전체	9.4	0.6	74.8	3.3	0.4	0.2	11.2
모든 문제상황 (중복응답처리)	남자	220.3	5.2	240.5	37.6	2.3	10.4	73.7
	여자	244.4	7.9	274.7	20.2	7.1	7.1	53.1
	전체	230.3	6.3	254.7	30.4	4.3	9.1	65.2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모든 문제상황 = 감정적/심리적, 건강, 금전, 안전, 가족, 본인의 취업/학업, 연애/결혼문제 총 8개의 각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을 묻는 문항의 답을 중복응답처리

〈표 8〉 다인 가구 청년이 문제상황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단위 : %)

구분		2인 이상 가구 청년						
문제	성별	가족	친척	친구, 학교 선후배	직장 동료, 선후배	소속 단체 지인	관련 전문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감정적/심리적	남자	33.1	0.7	51.5	2.9	0.4	1.2	10.2
	여자	38.8	1.1	48.5	2.7	0.7	0.9	7.2
	전체	36.0	0.9	50.0	2.8	0.5	1.1	8.7
건강	남자	70.0	0.5	12.9	0.8	0.2	6.1	9.5
	여자	75.0	0.4	9.1	1.9	0.1	5.2	8.2
	전체	72.5	0.5	11.0	1.4	0.2	5.7	8.8
금전	남자	74.9	0.6	12.5	1.5	0.1	0.8	9.6
	여자	77.7	1.0	10.7	1.3	0.2	0.0	9.1
	전체	76.3	0.8	11.6	1.4	0.1	0.4	9.4
안전	남자	53.6	0.5	19.6	7.5	0.7	2.0	16.2
	여자	63.5	0.4	21.2	2.9	0.0	0.6	11.5
	전체	58.5	0.4	20.4	5.2	0.3	1.3	13.9
가족	남자	70.8	1.0	18.2	1.1	0.2	0.1	8.7
	여자	71.4	1.2	19.3	1.5	0.3	0.4	5.9
	전체	71.1	1.1	18.7	1.3	0.2	0.2	7.3
본인의 취업/학업	남자	36.8	0.9	43.7	5.1	0.8	1.3	11.5
	여자	42.1	0.5	42.4	4.3	0.4	0.9	9.4
	전체	39.3	0.7	43.1	4.7	0.6	1.1	10.5
연애/결혼문제	남자	18.7	0.6	65.0	1.9	0.3	0.0	13.5
	여자	23.2	0.8	64.1	2.5	0.2	0.0	9.3
	전체	20.8	0.7	64.6	2.2	0.3	0.0	11.5
모든 문제상황 (중복응답처리)	남자	301.5	4.0	191.3	17.1	2.2	9.7	66.3
	여자	333.7	4.6	181.9	14.5	1.6	7.0	51.0
	전체	317.2	4.3	186.7	15.8	1.9	8.3	58.8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모든 문제상황 = 감정적/심리적, 건강, 금전, 안전, 가족, 본인의 취업/학업, 연애/결혼문제 총 8개의 각 문제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을 묻는 문항의 답을 중복응답처리

코로나19(COVID-19)와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1인 가구 청년 여성’

-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친구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 대해 다른 세 집단보다 사회적 관계가 멀어진 비율이 높음.

<표 9>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멀어진 청년 비율

(단위 : %)

구분	1인 가구 청년			2인 이상 가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가족	12.2	13.0	12.5	4.8	5.0	4.9
친인척	30.4	37.4	33.1	24.2	27.4	25.8
이웃	28.5	37.0	31.7	26.6	28.5	27.5
친구	24.0	26.1	24.8	23.0	27.9	25.5
동료	24.8	29.1	26.5	23.8	29.0	26.4
취미활동단체	46.6	55.1	49.9	41.2	45.4	43.2
종교단체	33.0	43.2	36.8	31.4	39.5	35.4
기타지인	44.6	44.9	44.7	38.1	41.5	39.8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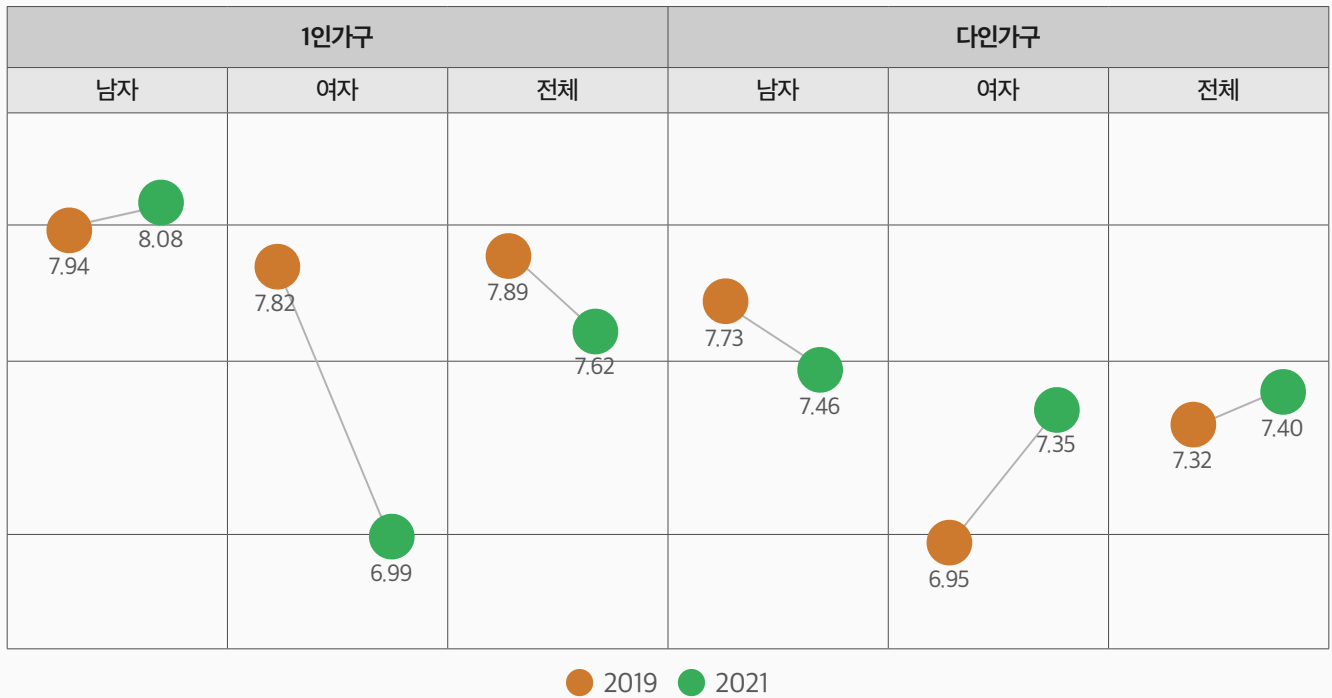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2) 각 대상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관계가 멀어졌다고 응답한 비율

-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경우 사회적 교류 대상 인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함.

- 1인 가구 청년 남성과 다인 가구 청년 여성의 경우 오히려 교류 대상 인원이 증가한 것과는 상반됨
-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코로나 이전에 다인 가구 청년 남녀보다 높은 교류 인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다른 집단에 비해 교류 인원이 가장 적어진 모습을 보임. 이러한 역전된 모습은 코로나19가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사회 교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4> 사회적 교류 인원 코로나 전후 비교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9, 2021)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역시 축소됨.

- 다른 세 집단은 모두 코로나19 이후 문제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1인 가구 청년 여성만이 코로나19 이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상황별로 살펴보면(<표 10>) 몸이 아프거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증가했으나,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원이 감소하면서 평균 도움 인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10> 위기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인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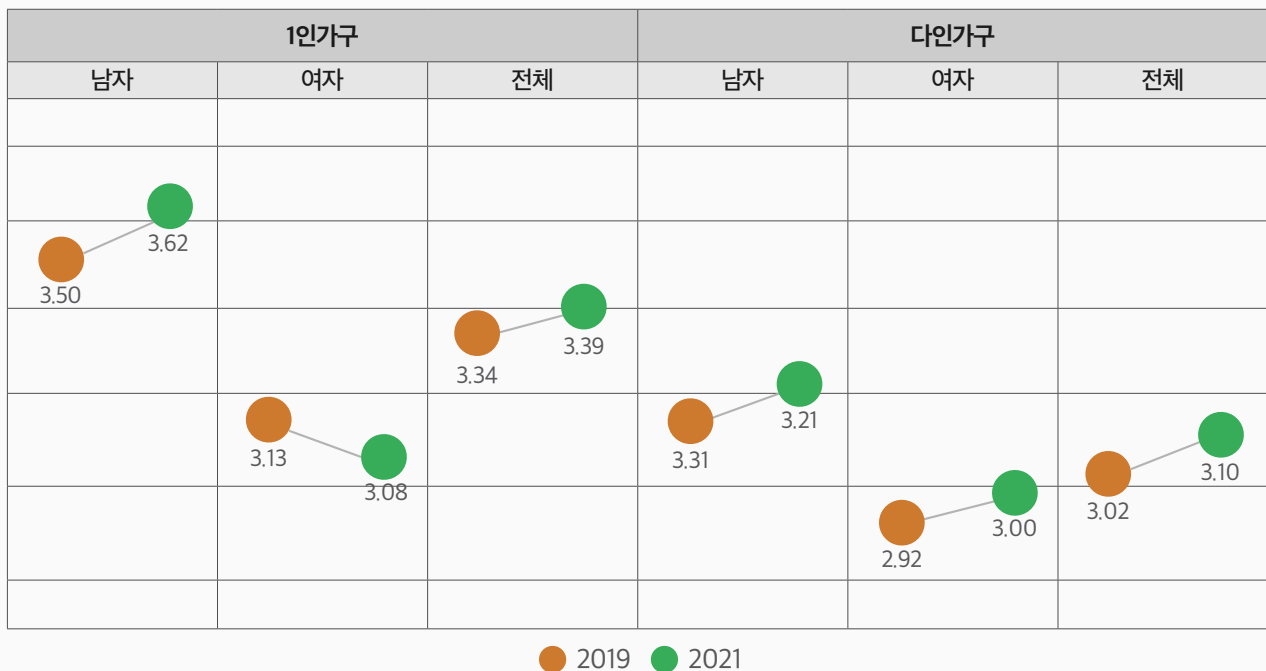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평균 도움 인원	2019	3.50	3.13	3.34	3.13	2.92	3.02
	2021	3.62	3.08	3.39	3.21	3.00	3.10
	증감	0.12	-0.05	0.05	0.09	0.08	0.08
	몸이 아플때	2019	2.90	2.51	2.73	2.70	2.61
		2021	3.10	2.64	2.90	2.80	2.70
		증감	0.20	0.13	0.17	0.10	0.09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때	2019	2.81	2.44	2.65	2.57	2.40
		2021	3.01	2.30	2.71	2.63	2.51
		증감	0.20	-0.14	0.06	0.07	0.10
	정서적으로 힘들때	2019	3.63	3.57	3.61	3.52	3.47
		2021	3.75	3.73	3.74	3.60	3.57
		증감	0.12	0.16	0.14	0.08	0.10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그림 5> 문제상황시 평균 도움 인원 코로나 전후 비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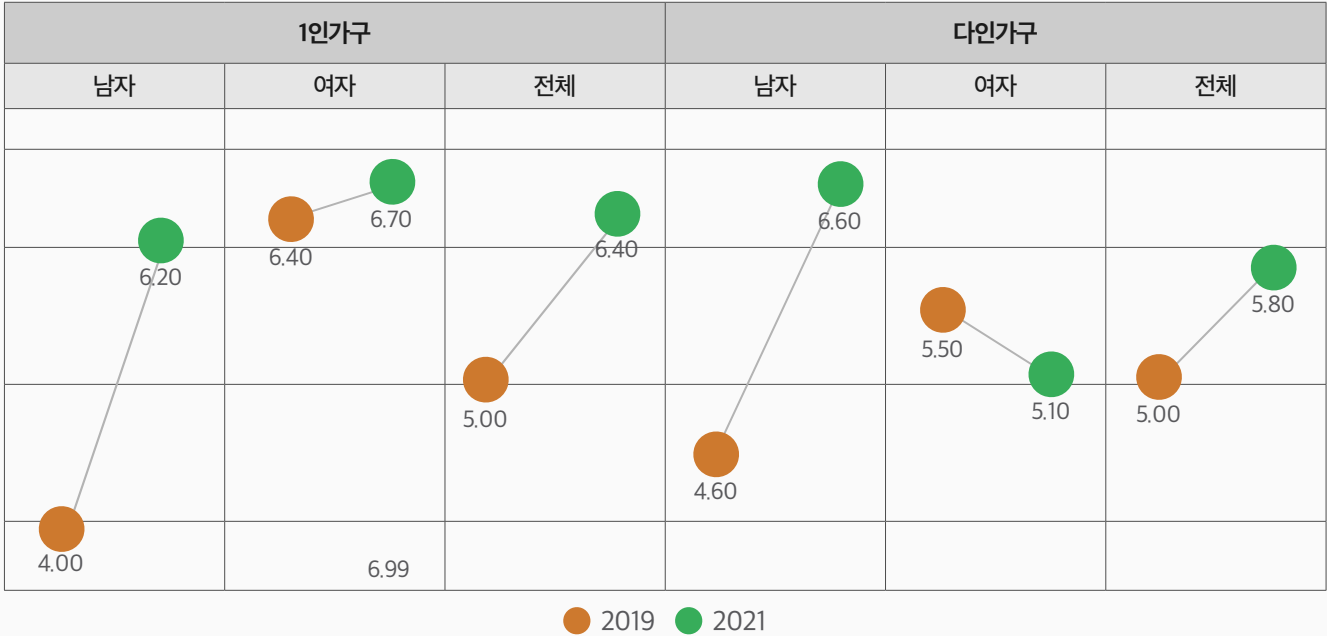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9, 2021) 원자료분석

* 주 : 1)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2) 몸이 아플 때, 금전문제, 정서적 문제 3가지 문제에 대한 평균 도움 인원

●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불만족스러움이 감소한 다인 가구 청년 여성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1인 가구 청년 여성이 코로나로 인해 받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큰 것으로 보임.

<그림 6>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청년 비율 코로나 전후 비교

(단위 :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19, 2021)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3)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

요약 및 시사점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 1인 가구 청년은 다인 가구 청년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문제상황 시 다인 가구에 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은 더 적게 나타남.
 - 이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교류가 양적으로 많을지라도, 실제 사회적 관계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교류 인원이 다인 가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한 점, 인간관계가 불만족스러운 비율이 감소한 다인 가구와 달리 증가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할 것으로 추측됨.
 - 또한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비대면 조치와 1인 가구 청년이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MSPSS)는 가족이었음에도 다인 가구에 비해 가족 및 친인척 등 혈연관계와 더욱 멀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 청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체계가 다방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교적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는 주로 노년층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음. 따라서 1인 가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역시 정책적 관심도가 필요함.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Cohen. et al, 1985; 한경혜 외, 2003; 서미 외, 2006; 허지연 외, 2009; 최미경 외, 2010; 박은옥 외, 2011; 임안나 외, 2017), 청년층의 취업과 같은 사회적 자원 및 정보에 접근할 기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김성훈, 2003; 원지영, 2010; 한겨레, 2012).

1인 가구 청년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필요

- 1인 가구 청년 남성과 여성은 다른 형태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활용하고 있음.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교류가 많고, 도움 요청이 가능한 비율이 높았으나, 교류 및 도움을 주는 대상 인원은 남성보다 적게 나타남.

- 조직 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네트워크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반면, 여성은 보다 좁고 폐쇄적인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함(강민정 외, 2015).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교류가 많고 도움 요청이 가능한 비율이 높았음에도, 교류 및 도움 인원이 적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고 느꼈던 것은 강민정 외(2015) 연구 결과와 같이 여성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작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됨. 이런 특징은 추후 제도 지원 시 고려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 인원과, 문제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인원이 감소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의 코로나19 이후 가장 부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집단임.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노동을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남성에 비해 더 쉽게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조정(휴업·휴직, 임금삭감 등)으로도 인한 빈곤 상태에 놓여지게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실제로 여성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가 넘으며, 그중에서도 20~29세 연령층이 가장 많았음(김원정, 2021). 또한 코로나19 이전부터 재직 중인 여성중의 46.3%는 고용조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그중 35~47%는 여성·임산부 등을 우선 대상으로 고용조정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남(김원정, 2021).
-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소득 감소 사유가 코로나19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을 추가로 한 결과(부록 [그림 1]),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평균 교류인원, 평균 도움 인원, 인간관계 불만족 비율 모두 남성에 비해 소득 감소 사유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크게 보임. 특히 평균 교류인원의 경우 남성은 오히려 소득 감소 사유가 코로나19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1.7배 더 많았으나, 여성은 약 1.3배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비율 역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약 1.8배 더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고소득일 때 사회적 관계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과 사회적 관계에 할애하는 시간과의 관련성을 보여줌(노혜진, 2018). 이런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빈곤으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은 소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감소를 위한 사회적 교류 활동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음.
- 특히 1인 가구 청년 여성은 다인 가구 청년과 달리 가구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교류 활동이 감소될수록 고립이 발생하고, 빈곤 역시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특징으로 추측됨.
- 따라서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사회적 고립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별도의 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1인 가구 청년 남성의 경우 사회적 교류나 사회적 관계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남성은 여성보다 네트워크 범위와 크기가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당 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또한 남성은 특정한 친밀한 개인과의 빈번한 접촉보다는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보다 큰 사회적 지지로 지각함(이성희, 1999). 이런 남성의 대인관계 양상을 고려했을 때 다양하고 넓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선 주변 환경자원이 갖춰져야 할 것임.
- 추가분석을 한 결과(부록 <표 2>), 1인 가구 청년 남성은 사회적 교류 및 사회적 관계망 구성 현황에 대해 취업 또는 재학 중인 집단과 실업·비경제활동 또는 비재학 상태인 집단과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크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운 집단(실업·비경제활동 또는 비재학 상태)인 남성들이 집단 간 차이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됨. 추가분석에서는 취업 및 재학 상태 여부를 가지고만 살펴봤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집단을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특징을 고려해 각 성별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함.

● 1인 가구 청년들의 성별 및 특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망 보호를 위한 제도 역시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

- 앞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망 형태는 성별 간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 관계망에 의한 영향 역시 성별 간 차이를 보임(박수잔 외, 2011)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중 성별이 고려된 제도는 안전 분야³⁾ 안전 키트(이중장금장치, 긴급벨, 안전센서 등) 지원이나, 무인택배함 서비스 등밖에 없음. 안전분야 외에도 1인 가구 청년들의 성별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지속적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관련 정책 및 지원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함.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는 크게 주거, 재정지원, 돌봄, 안전, 정신건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는 주로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가 가장 많음(임대주택 지원, 전·월세지원, 주거안심 상담 등).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제도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의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계획 발표를 토대로 지자체 또는 자치구 단위로 관련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⁴⁾ 싱글빙글 서울(<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2022년 5월 26일 접속의 경우 주로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개인 및 집단상담), 1인 가구 자조모임, 멘토링, 심리·정서 상담 지원, 커뮤니티 공간지원, 취미활동·여가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음.

3) 안전 키트(이중장금장치, 긴급벨, 안전센서 등) 지원이나, 무인택배함 서비스 등

4) 싱글빙글 서울(<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2022년 5월 26일 접속.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필요

- 현재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제도들은 대부분 연령층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부족함.

- 연령층 구분 없이 제공되는 제도는 청년층 1인 가구가 가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청년층이 참여 및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임.

- 또한, 분석결과 청년층은 문제상황 시 관련 전문가를 찾는 비율이 매우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위주의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함.

- 더불어 현재 관련 지원 제도들 중 단순 활동비 지원 및 공간 지원 사업은 고립된 청년층들이 활용하기는 더욱 어려움. 이미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구성되어 있는 청년들이 이용 신청을 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청년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임.

- 1인 가구 청년층들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을 위해 상담 위주의 지원이나, 금전적 자원 지원보다 고립된 청년층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또래 집단 프로그램의 진행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인 가구 청년 현황에 대한 심층분석과 추적조사를 위한 공식 통계 생성

- 분석 결과 1인 가구 청년은 사회적 지지체계 구성 및 형태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1인 가구의 관련 성별 간 특성 차이에 대해 더욱 다방면적인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다인 가구 청년과의 비교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청년 간 차이를 보기 위해 어떤 청년인지 사회적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1인 가구 청년의 현황 및 성별 간의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밝혀 이를 지원 제도에 녹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은 막연한 사실이나, 이를 주기적이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지만, 실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공식 통계 역시 매우 부족함.

- 1인 가구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함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나, 관련 기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공식 통계 생성이 시급함.

● 참고자료

- 강민정, 최윤정, 김영진, 박지혜. (2015). 기업 내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의 성별 특성 및 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lidx=115084&no=1>
- 김원정.(2021). “코로나19 1년-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 코로나 19 이후 여성 취업 변동과 고용위기 대응 정책 개선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63).
- 노혜진.(2018).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보건사회연구, 38(2), 71-102.
- 박수잔,조성일,장숙량.(2011).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이 성별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4), 39-49.
- 박은옥.(2011). 성별에 따른 성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 17(2), 169-177.
- 서미,최보영,조한익.(2006).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 나눔의 집.
- 쌍글벙글 서울 <https://lin.seoul.go.kr/front/user/main.do>. 2022년 5월 26일 접속.
- 원지영.(2010). 인적 자본과 사회적 관계망이 청년층의 일자리 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374-390.
- 이성희.(1999).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59-170.
- 임안나,박영숙.(2017).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3), 675-682.
- 정은주.(2021.1.4). ‘사회적 관계망’ 펼쳐면 일자리 잡힌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working/513396.html> 2022.6.13. 접속
- 최미경,이영희.(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경제 상태. 정신건강간호학회지, 19(2), 196-204.
- 통계청.(2019). 「2019년 사회조사」 원자료.
- 통계청.(2021). 「2021년 사회조사」 원자료.
- 한경혜,김주현,김경민.(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9) 원자료.
- 허지연,손은정,(2009), 청년기와 중년기 집단에서의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사회과학논총, 28(2), 105-129.
- Cohen, S. and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부록**

<표 1>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SPSS)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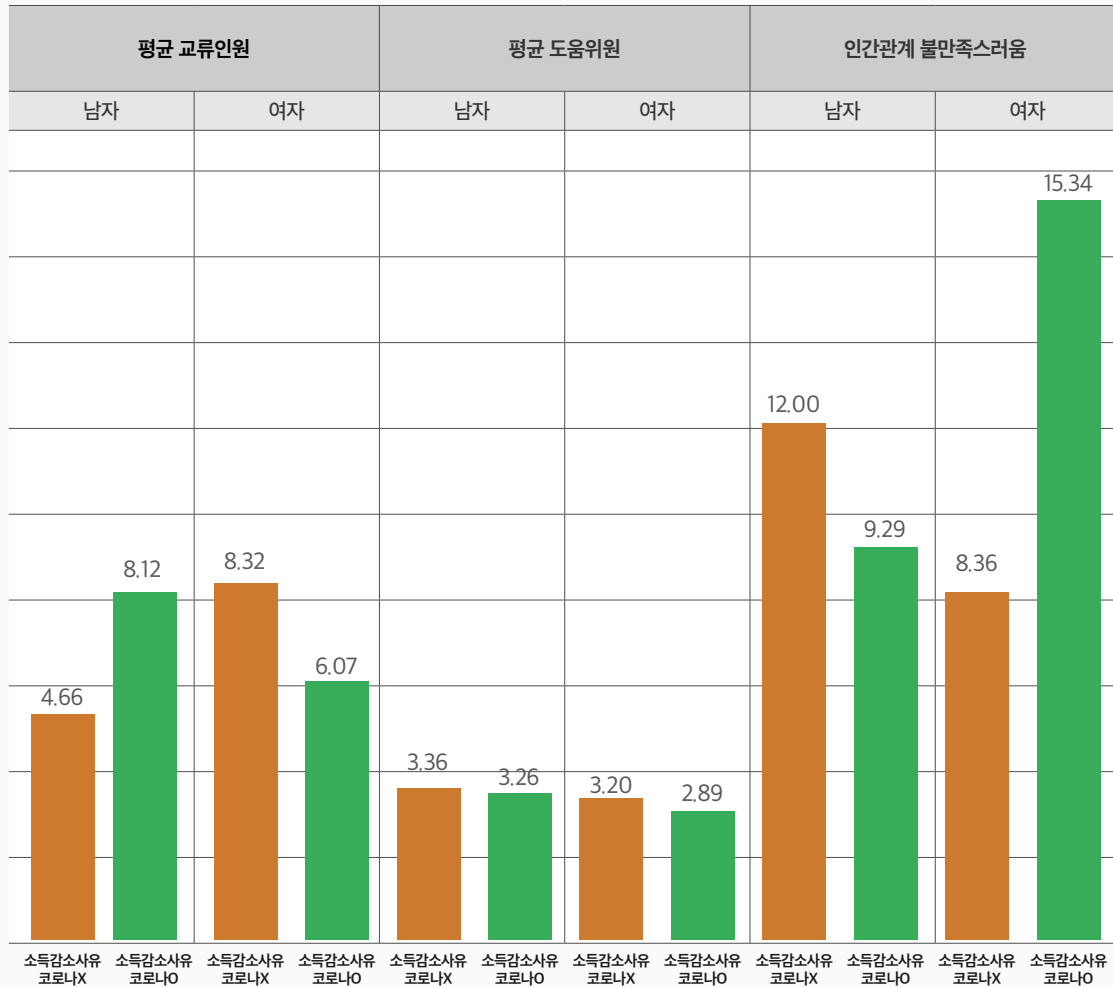
구분	문항
의미있는 주변인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의미있는 주변인	나에게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
가족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가족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의미있는 주변인	나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해줄 사람이 있다.
친구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친구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나는 나의 친구에게 의지할 수 있다.
가족	나는 나의 문제들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친구	나는 나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친구들이 있다.
의미있는 주변인	내 인생에는 나의 감정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다
가족	나의 가족들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친구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자료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제2판에서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p.211-212 재재인용.

* 주 : Zimet et al(1998)가 개발한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SPSS :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그림 1> 1인 가구 청년 소득감소 사유에 따른 사회관계 현황

(단위 : 명, %)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 3) 평균 교류인원 = 같이 거주하거나, 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하고 가족·친인척 및 그 외의 사람들 중 대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는 인원 4) 평균 도움 인원 = 몸이 아플 때, 금전문제, 정서적 문제 3가지 문제에 대한 평균 도움 인원 5) 인간관계 불만족스러움 = 약간불만족한다 + 매우불만족한다

<표 2> 1인 가구 청년 상태에 따른 교류 및 도움 현황

(단위 : %, 명)

구분	취업 또는 재학 상태			실업·비경제활동 또는 비재학 상태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사회적 교류가 있음(%)	87.9	94.4	90.5	81.8	92.2	85.3
평균 교류 인원(명)	8.32	7.02	7.76	6.86	6.86	6.86
아무와도 사회적 교류가 없음(%)	12.1	5.6	9.5	18.2	7.8	14.7
도움 요청 대상 있음(%)	87.5	95.9	90.9	80.4	92.3	84.5
도움 지원 가능 인원(명)	3.70	3.13	3.45	3.26	2.75	3.06
모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	12.5	4.1	9.1	19.6	7.7	15.5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2021) 원자료분석

* 주 : 1) 가중치부여 2) 무응답 및 해당없음 제외